

한전, 상반기 적자 8천억... 유가 올라 하반기도 먹구름

원전비중 8%→5% 줄어들었지만
값비싼 LNG 22%→29% 비중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정지 등 적자키워

한국전력공사가 올 상반기 8000억원대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 내내 원전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측은 안전점검 때문에 원전가동률이 감소했으며, 하반기에는 원전의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설명했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하반기 수익성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8147억원의 (잠정)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의 2조3097억원 대비 3조1244억이나 급감한



전남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자리잡은 한국전력 사옥. /뉴스

수치다. 매출은 29조43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710억원 늘었지만 순손실이 1조169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2590억원 대비 2조4280억원이나 줄었다.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원전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값비싼 LNG 등을 연료로 쓰는 발전소의 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원전비중은 8%에서 5%로 줄었지만 LNG비중은 22%에서 29%로 늘었다.

국제 유가 상승,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정지 등도 적자를 키우는 데 한 몫 했다. 올 상반기 미국의 이란 제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유가가 33% 이상 급등했고 유연탄 가격도 28%나 올랐다. 국제 연료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영업비용의 32.5%를 차지하는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은 2조원(26.7%)이나 증가했다.

그 결과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력의 총비용도 전년동기대비 2조1000억원(29.8%) 늘었고 납건물 철관부식, 콘크리트 공급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원전 정비일수 증가도 영업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신규 발전소 준공, 송전선로 신·증설 등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력설비 투자로 감가상각비도 4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측은 계절별 손익 구조상 2분기 수익이 가장 낮고 3분기 수익이 높은 점을 감안해 하반기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원전가동률을 끌어올린다 해도 현재 석탄, LNG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두바이유가는 70달러선을 유

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지원실장은 "에너지전환(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유가 등 변동요인이 있을 때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한전의 재무상태를 위협하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라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해정 KB증권 연구원은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는 CPI 상승률(7월 1.5%)과 빠른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10월 전기요금인상 가능성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韓 GDP 1조5308억 달러 '세계 12위'

세계순위 러시아에 밀려 한계단 ↓
GNI 2만8380달러... 45위→3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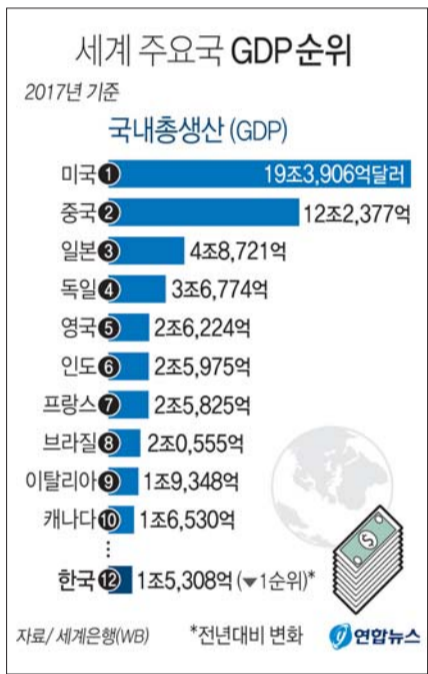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세계 순위가 한 계단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물가를 반영한 1인당 GNI 순위는 10계단 이상 뛰었다.

16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5308억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 GDP 세계 순위는 2005년 10위까지 올랐으나 2006년 11위, 2007년 13위, 2008년 15위로 밀렸다.

이후 2009~2013년에는 14위에 머물렀다가 2014년 13위, 2015~2016년 11위로 올랐다가 지난해 한 계단 떨어졌다.

한국보다 밑에 있던 러시아가 1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GDP 순위 1위는 19조3906억달러를 기록한 미국이었다. 2위는 중국(12조2377억달러)이었고 3위는 일본(4조

8721억달러), 4위 독일(3조6774억달러), 5위 영국(2조6224억달러), 6위 인도(2조5975억달러), 7위 프랑스(2조5825억달러)가 차지했다.

8~10위는 각각 브라질(2조555억달러), 이탈리아(1조9348억달러), 캐나다(1조6530억달러)가 올랐다.

한 나라 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과 관련 깊은 지표인 1인당 GNI에서 한국은 지난해 2만8380달러로 31위를 차지했다. 2016년 45위에서 14계단 뛰었다.

나라마다 다른 물가 수준을 반영해 실제 국민들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구매력 평가(PPP) 기준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8260달러로 역시 31위였다. 전년 48위에서 순위를 17위나 끌어 올렸다.

1인당 GNI 관련 지표 상승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환율 영향이 있어 보인다"며 "PPP 기준 1인당 GNI가 상승한 것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 서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일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연일뉴스

文 대통령 “은산분리, 특례법으로 풀 것”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초당적 협력

정부와 정치권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고 협치를 본격화한다.

국회는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은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직무대행) 의원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6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이갈

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우선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고, 필요시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오는 11월에 열기로 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위한 법안,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이 포함된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 관련해서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3차(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김승호 기자 bada@

‘냉면값’ 6년만에 최대폭 뛰어

평양냉면 열풍+111년만의 폭염에
6월·7월 각각 4.5%·4.3% 인상

올여름 냉면값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평양냉면 열풍’에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 덕분이다. 특히 ‘냉면 격전지’인 서울의 냉면값은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더 올랐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과 7월 냉면값은 1년 전보다 각각 4.5%, 4.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은 2012년 3월 5.3% 오른 이후 가장 많이 오른 달로 기록됐다. 전체 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냉면값 상승은 가파르다고 볼 수 있다.

냉면값은 올해 초부터 들쭉이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2%대 증가율을 보인 냉면값은 2월과 3월 각각 3.2%, 3.6% 오르며 3%대 상승률에 진입했다. 그러다가 4월 4.2%, 5월 4.1% 등 넉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는 4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냉면 인기 상승을 꼽을 수 있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회담에서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다”며 “(문재인) 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옥류관에서 공수해온 평양냉면을 맛보고 있다. /청와대

통령께서 편한 맘으로, 평양냉면, 멀리서 온, 아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전국 평양냉면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111년 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날씨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냉면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단연 서울이다.

서울 냉면값 상승률은 4월 7.6%, 5월 7.1%, 6월 7.6%, 7월 6.3% 등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서울은 전국 냉면의 격전지다. 평양냉

면과 함흥냉면은 물론 칩냉면, 중국식 냉면 등 다양한 냉면 메뉴를 맛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가격 부담은 그만큼 크다.

세숫대야 냉면으로 유명한 인천의 냉면값 상승세도 서울과 쌍벽을 이룬다. 3~7월 매달 상승률 7.3%를 이어가고 있다. 7월 상승률은 서울을 제쳤다. 7월 기준 냉면값 상승률은 인천과 서울에 이어 충북(5.9%), 부산(5.8%), 충남(5.6%), 광주(5.2%), 울산(5.2%), 전남(4.6%)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靑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 선임

비서관 총 4명 추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에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유민영(51) 에이케이스 대표(사진)를 임명했다. 최우규(50) 홍보기획비서관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비서관에는 김봉준(51) 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문화비서관에 남요원(56) 현 문화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승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6일 자영업비서관 등 6명의 비서관을 인선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비서관을 임명했다. 유신임 홍보기획비서관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동암고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정부 때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을 지냈다. /김승호 기자 bada@